

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

arts change the world

예술



아카이브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

2015.7.

## 예술아카이브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

2015년 7월 인쇄

2015년 7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20-350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 화 061-900-2100, 2200

팩 스 061-900-2363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mailto: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예술아카이브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

2015.7.

##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예술아카이브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본 연구의 내용은 예술자료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주)이음스토리

책임연구원 이호신 (주)이음스토리 문화아카이브연구소 소장

연구원 최해리 (사)춤문화자료원 공동대표

박상애 백남준아트센터 아키비스트

연구보조원 박연진 (주)이음스토리 문화아카이브연구소 연구원

보조원 이승미 (주)이음스토리 문화아카이브연구소 연구원

오우람 (주)이음스토리 문화아카이브연구소 연구원

목차  
contents

제1장	여는 말	11	제4장	예술자료원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한 제안	7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제1절: 국가예술아카이브로서의 정체성 정립과 활동 정비	7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2절: 예술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기록물 수집 체계 확립	76
				제3절: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운영 활성화	80
				제4절: 기억 저장소에서 창조지원센터로	84
제2장	예술자료원의 운영 환경 점검	17	제5장	닫는 말	87
	제1절: 예술자료원의 연혁 및 재통합 배경	18			
	1. 예술자료원의 연혁	18			
	2. 예술자료원의 재통합 배경	20			
	제2절: 예술자료원 운영 현황	21			
	1. 시설 및 자료 현황	21			
	2. 사업 현황	30			
	제3절: 예술자료원의 한계와 가능성	35			
	1. 선행연구의 제안과 현실에서의 제한	35			
	2. 예술자료원 운영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37			
제3장	예술자료원 운영 방향의 재정립	41	참고문헌		92
	제1절: 예술자료원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검토	42			
	제2절: 사업 수행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검토	49			
	제3절: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검토	62			
	제4절: 아카이브에 대한 특이성(Singularity) 검토	66			

## 표 목차

[표 2-1]	예술자료원 약사	19
[표 2-2]	서초동 시설 현황	21
[표 2-3]	대학로 분원 시설 현황	22
[표 2-4]	예술자료원 자료 현황	23
[표 2-5]	예술자료원 업무 분담 현황	25
[표 2-6]	3년간 예산 현황	27
[표 2-7]	최근 3년간 입수자료 현황	30
[표 2-8]	최근 3년간 강좌 수강 현황	31
[표 2-9]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현황	32
[표 2-10]	최근 3년간 예술 정보 페이지 이용 건수	34
[표 3-1]	예술활동의 유형에 따른 예술기록의 종류	59
[표 4-1]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예시	78

## 그림 목차

[그림 2-1]	예술자료원 조직도: 2012~2013	24
[그림 2-2]	예술자료원 조직도: 2014~	24
[그림 2-3]	3년간 예산 현황	28
[그림 2-4]	최근 3년간 이용현황	33
[그림 2-5]	SWOT 분석도	37
[그림 3-1]	Europeana.1	45
[그림 3-2]	Europeana.2	46
[그림 3-3]	Europeana.3	47
[그림 3-4]	Europeana.4	47
[그림 3-5]	Europeana.5	48
[그림 3-6]	한국문화관협회가 구축한 전국 58개 문학관 소장자료 DB 1	50
[그림 3-7]	한국문화관협회가 구축한 전국 58개 문학관 소장자료 DB 2	50
[그림 3-8]	apac홈페이지	52
[그림 3-9]	기초학문자료센터.1	53
[그림 3-10]	기초학문자료센터.2	54
[그림 3-11]	기초학문자료센터.3	55
[그림 3-12]	기초학문자료센터.4	55
[그림 3-13]	RISS	57
[그림 3-14]	RISS	60
[그림 3-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63
[그림 3-16]	Getty 용어 사전	64
[그림 4-1]	예술자료원 중점 운영 방향	72

## 제1장

# 여는 말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예술은 한 시대의 삶의 자취를 담아내고,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현대 사회에서는 그 자체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산업적인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예술은 인간 생활의 다양한 활동과 국면 속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서는 비단 결과물로서의 작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는 과정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기록과 자료들로도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
- 이 기록과 자료들에는 예술 작품 속에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의 맥락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동시대 인들과 만나고 소통하는가에 관한 설명이 담겨 있음.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활용해서 작품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거나 예술가가 작품 창작에 동원했던 예술적 방법론을 유추하고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됨.
- 이런 까닭에 최근에는 예술자료와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보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의 활성화와 맞물려서 점차 논의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10년 국립예술자료원의 출범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술기록과 자료의 수집과 관리·활용을 제도화할 새로운 국가적인 문화시설의 창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의 제시였음.

- 그렇지만 국립예술자료원은 출범 4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 간판을 내리고, 2014년 5월에 이전에 이를 운영하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다시 흡수·통합되었음.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자료원으로서의 국립예술아카이브는 이루지 못한 꿈으로 남게 되었지만, 변화된 환경에서도 예술자료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보존할 주체는 여전히 필요함. 어떤 위상과 방법으로, 어떤 범위에서 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갈 것인가가 이제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임.
- 이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재통합이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예술자료원이 어떻게 그 위상과 정체성을 자리매김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임. 이를 통해서 예술기록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변화된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 예술자료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다룸.
  - 예술자료원 운영 환경 점검
    - 사업 및 시설 운영 현황 및 환경 점검
    - 사업 및 시설 운영 방향 제안
    - 관련 아카이브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방안 모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통합에 따른 중점 운영 방향 수립
    - 기관 통합에 따른 환경 변화와 방향성 재정립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예술기록정보와의 연계 가능성 모색
  - 국내·외 주요 아카이브와 관련 사례(주요 사업, 자료수집시스템, 보존 및 활용사례 조사)
-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예술자료원의 운영 환경 점검과 중점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예술자료원 기초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 및 현황 분석
    - SWOT 분석에 따른 운영 방향성 및 정체성 재정립
    -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예술자료원 관계자 연석회의 및 연구진 내부 세미나를 통한 방향성 재정립, 예술계 및 기록학 전문가 자문)

예술아카이브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



## 제2장

# 예술자료원의 운영 환경 점검

### 제1절: 예술자료원의 연혁 및 재통합 배경

1. 예술자료원의 연혁
2. 예술자료원의 재통합 배경

### 제2절: 예술자료원 운영 현황

1. 시설 및 자료 현황
2. 사업 현황

### 제3절: 예술자료원의 한계와 가능성

1. 선행연구의 제안과 현실에서의 제한
2. 예술자료원 운영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 1. 예술자료원의 연혁

- 예술자료원은 1979년 5월에 현 아르코미술관(당시 미술회관) 3층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으로 개관하였으며, 당시 도서자료실과 시청각자료실로 구성되어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예술 각 장르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공연 및 전시 자료(각종 팸플릿, 포스터, 사진 등), 공연 현장 실험 영상 등을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전문도서관으로 출발하였음.
- 1987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개소와 함께 덕수궁 석조전으로 확장 이전.
- 1992년 예술의전당 예술자료관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을 통합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술의전당 예술자료관으로 이전함.
- 2003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수행을 기점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실물자료와 각종 현장 기록물과 아카이브를 수집하는 역할로 점진적으로 그 역할을 확장.
-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과 함께 아르코예술정보관으로 명칭을 변경.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현장 활성화를 위한 예술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독립하여 별도의 기구 설립 확정.
- 2010년 국립예술자료원(Korean National Archives of the Arts)으로 재출범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예술자료 수집, 보존, 조사, 연구를 위한 전문기구를 표방함. 예술자료원의 비전은 ‘예술자료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가 허브 센터’이며, 미션은 ‘자료의 집대성과 활용을 통한 예술가치의 재창조’라고 규정함. (아르코예술정보관이 예술전문도서관으로 운영된 것과는 달리 국립예술자료원은 예술 전문 아카이브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다양한 예술가들과 예

술단체가 생산한 예술기록을 수집하는 매뉴스크립트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침 변경으로 국립예술자료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다시 흡수 통합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부 조직도 축소 개편되었음.
- <표1>은 예술자료원의 간략한 역사를 정리한 표로, 예술분야 전문도서관으로 출발해서, 국가적인 규모에서의 예술기록관리전문기구로 그 역할을 확장하였던 예술자료원의 과거를 살펴볼 수 있음.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현장 활성화를 위한 예술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독립하여 별도의 기구 설립 확정.

[표 2-1] 예술자료원 역사

시 기	내 역
1973년 10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1979년 5월	현 아르코미술관(당시 미술회관) 3층에 도서자료실, 시청각 자료실로 구성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 개관
1987년 2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개소와 함께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 (도서실, 시청각실, 전산실, 사진실)
1992년 6월	예술의전당 예술자료관과 문예진흥원 자료관 통합 및 예술의전당 이전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에 따라 아르코예술정보관으로 명칭 변경
2010년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분리/독립. (재)국립예술자료원으로 확대개편
2010년 12월	대학로 분원 개원 (연극/무용 중심으로 활용)
2014년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통합 및 예술자료원으로 명칭 변경

## 2. 예술자료원의 재통합 배경

- 예술자료의 수집, 기록, 보존의 체계화를 위해서 2010년 국립예술자료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독립하여 확대 개편되었으나,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관련 예산을 확충하지 못한 채로 운영이 지속되면서 뚜렷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고리가 끊기면서 예술기록의 수집과 보존이 오히려 퇴행하였다고 바라보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임.
- 국립예술자료원은 소규모의 예산과 인력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기록물을 수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였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현재적 예술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창작 현장과의 연계 고리를 확보하고 현장의 생산기록물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사업 및 전국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의 신청과 결과물 제출이 이루어지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과의 연계를 통해서 현재 발생하는 당대 예술활동에 대한 아카이빙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음.

## 1. 시설 및 자료 현황

### 1) 시설현황

- 예술자료원은 현재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층 일부와 3층 전체를 사무실, 서고, 열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에 예술자료실을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초동 본원 :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층, 3층

[표 2-2] 서초동 시설현황

(단위: m<sup>2</sup>)

층별	공간명	용도	면적
2층	문헌정보실	단행본, 연속간행물 서고 및 열람실 ※ 7만 여건의 도서 및 기증 컬렉션 제공	1,007.5
3층	영상음악실	영상음악자료 서고 및 개인감상실 ※ 4만 여건의 CD, LP 및 DVD 자료 제공	1,749.34
	공동감상실	단체 감상 공간 (2개소)	
	세미나	세미나실	
	특수자료실	특수자료 보관 및 열람	
	서고	기증자료실, 보존자료실, 사진자료실	
	사무실	사무공간 및 영상콘텐츠 편집	
계			2,756.84

## 제2절 예술자료원 운영 현황

－ 분원 : 대학로 예술가의집 2층

[표 2-3] 대학로 분원 시설 현황

(단위: m<sup>2</sup>)

공간명	용도	면적
예술자료실	연극, 무용 중심의 도서 및 영상 자료 열람실 ※ 2만 여건의 연극·무용 관련 도서·영상자료 제공	337.7
영상감상실	연극, 음악, 무용 등 영상 감상 프로그램 운영	63.7
계		401.4

## □ 시설 운영에서의 문제점

- － 입수자료 비율 중 수증방식의 비유통 실물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나 특수자료 보관을 위한 공간이 협소
- － 실물 및 영상자료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미확보
- － 도서관적 운영 전통이 강하게 남아서 열람 공간이 과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더구나 서초동과 대학로로 이원화된 서비스 공간을 축소 조정할 필요

## 2) 자료현황

[표 2-4] 예술자료원 자료 현황

(2015년 3월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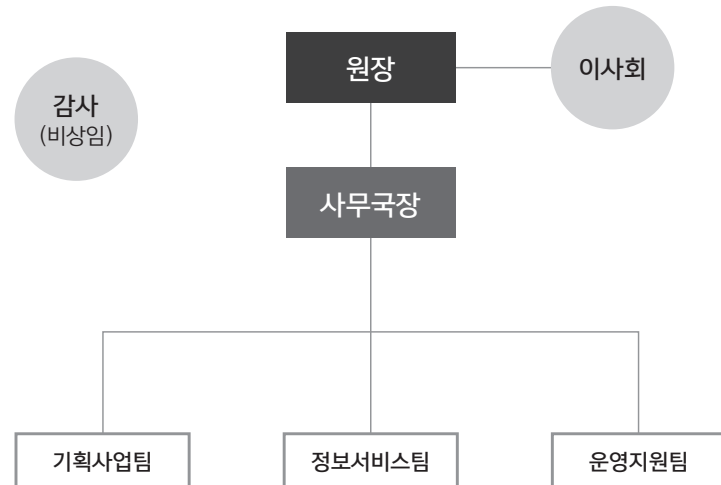
구 분	소장량(점)
도서자료 (단행본, 연속 간행물)	90,110
비도서자료(공연대본, 공연 및 전시 팸플릿, 포스터, 사진자료, 마이크로 필름약보)	158,333
영상자료 (DVD, Blue Ray, VHS, LD, VCD, 슬라이드, 필름 및 비디오 등)	30,406
음악자료 (CD, 릴 테이프, LP, SP)	34,239
미디어(CD-ROM)	810
계	313,898

□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미등록 자료 35만 점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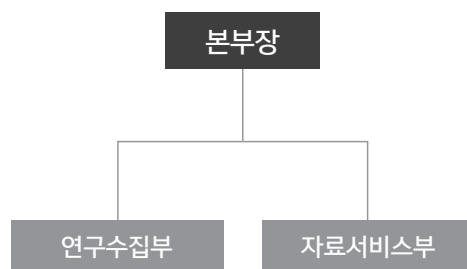
## 3) 인력 및 조직 현황

- 정규직 총 15명 (3년간 변동 없음)
- 조직 변화 1원장, 1사무국장, 3팀 (기획사업팀, 정보서비스팀, 운영지원팀) 조직이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와 재통합 이후 1원장, 2부(연구수집부, 자료서비스부) 체제로 변경되었음.
- 정규직 총원의 변화는 없으나, 계약직 인력 수는 변화 중.

[그림 2-1] 예술자료원 조직도: 2012~2013



[그림 2-2] 예술자료원 조직도: 2014~



## □ 업무 분담 현황 (2015 현재 기준)

[표 2-5] 예술자료원 업무 분담 현황

부서	담당업무
연구 수집부	공연 및 시각예술자료수집(구입·수증 및 정리)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공연예술, 시각예술, 대중예술, 문화예술정책)
	공연 및 전시 영상제작 사업
	예술기록관리 교육사업 기획 및 워크숍 운영
	예술자료 아카이브전시
	창작음악 아카이브 자료수집
	예술자료원 사업 홍보
자료 서비스부	DA-Arts 시스템 구축 및 창작음악아카이브 DB 구축
	미술작가500인, 희곡디지털도서관 사이트 운영
	대학로 예술자료원 운영
	문헌정보실, 영상음악실 자료관리 및 이용자 정보서비스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운영 및 컬렉션 구축
	시각예술 아카이브 구축 담당, 문화다양성아카이브
	소장자료 분류 및 메타데이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 2015년 현재 총 인력 수 19명(본부장 1명, 연구수집부 8명, 자료서비스부 10명). 인턴 및 파견직 제외.

□ 자료의 수집과 연구, 온/오프라인 서비스로 크게 분류하여 2부 체계로 개편  
 - 연구수집부의 주요업무는 수증과 제작, 구입을 포함하는 자료의 수집업무와 소장 자료의 활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전시 및 홍보 업무, 그리고 교육사업과 구술채록 사업으로 나뉨

## 제2절 예술자료원 운영 현황

– 자료서비스부는 온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분류 및 메타 구축 전반에 걸친 업무, 대학로 분원 운영 전반, 본원과 분원의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 전체를 수행하고 있음

□ 연구수집의 사업범위에 비해 실제 사업 수행 인력수가 적절치 않음. 예술자료원이 지난 3년간 수집한 자료의 수가 2012년 14,819건, 2013년 15,000여건, 2014년 17,000여 건이라는 점을 살펴볼 때 수집 자료 관리 인력이 4인에 불과하다는 점은 수행 업무량 대비 인력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4인의 수행업무가 자료수집 이외에도 구술채록, 교육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 자료서비스부의 업무를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로 나눈다면, 온라인 서비스가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총괄하는 인력 1인 밖에 없으며 모두 운영에 투입되어 있음. 온라인 서비스 중 미술작가 500인 사이트와 희곡디지털도서관 사이트 운영은 예술자료원 시설관리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집중도를 기대하기 어려움.

## 4) 예산현황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표 2-6] 3년간 예산 현황

(단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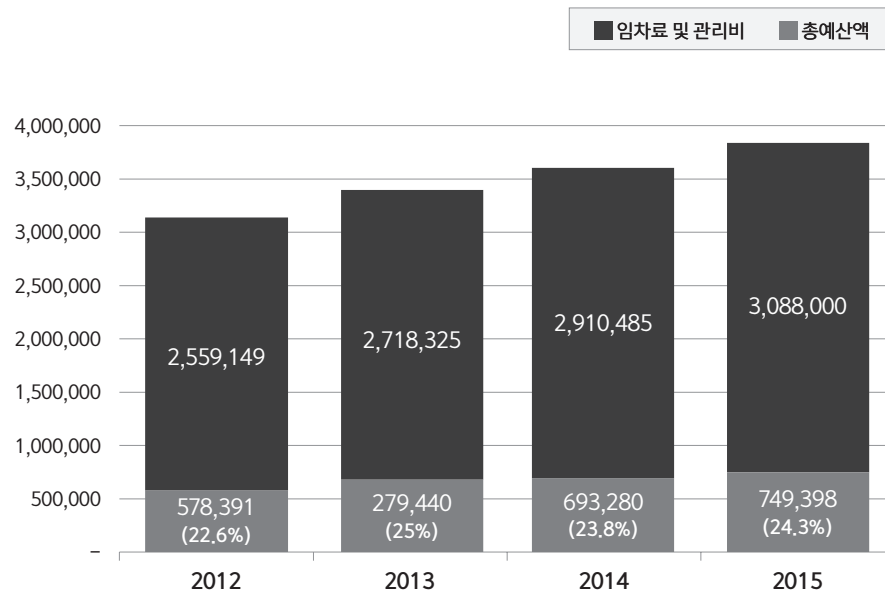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국고	자체	계	국고	자체	계	국고	자체	계
예술자료원 운영 계	2,125,000	81,149	2,206,149	2,286,000	52,779	2,338,779	2,286,000	82,553	2,368,553
인건비	606,799	2,091	608,890	625,000	15,840	640,840	625,000	-	625,000
기관운영비	765,201	69,058	834,259	905,000	21,939	926,939	905,000	56,500	961,500
사업운영 소계	753,000	10,000	763,000	756,000	15,000	771,000	756,000	26,053	782,053
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	330,560	-	330,560	363,000	-	363,000	366,000	5,000	371,000
예술정보 통합서비스	276,038	10,000	286,038	294,416	15,000	309,416	299,500	15,953	315,453
대학로 분원 운영	146,402	-	146,402	98,584	-	98,584	90,500	5,100	95,600
특별사업 소계	350,000	-	350,000	-	-	379,546	539,611	2,321	541,932
예술기록관리 전문가 교육 및 시스템 구축	270,000	-	270,000	290,000	-	290,000	400,000	-	400,000
문화다양성 아카이브구축	80,000	-	80,000	80,000	-	80,000	80,000	-	80,000
문화다양성 (이월)	-	-	-	9,546	-	9,546	33,211	-	33,211
구분	2012			2013			2014		
	국고	자체	계	국고	자체	계	국고	자체	계
연수단원 운영	-	-	-	-	-	-	26,400	2,321	28,721
총계	2,478,000	81,149	2,559,149	2,665,546	52,779	2,718,325	2,825,611	84,874	2,910,485

## 제2절 예술자료원 운영 현황

- 예술자료원 예산구성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기본사업비 외에 특별사업비로 구성되며, 지난 3년간 특별사업 내역은 예술기록관리 전문가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연수단원 운영으로 정리될 수 있음.
- 특별사업 포함 전체 사업비는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대비 평균 78%선을 유지.
- 자료원 기본사업비 증가비율이 전년도 대비 2013년 1%, 2014년 1.4% 인 것에 비해 동기 기관운영비 증가비율은 각각 11.1%와 3.7%를 기록. 특히 기관운영비는 예술의전당과 임대계약 갱신 이전인 2009년 430,000천원에 비해 2014년 961,000천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예산 중 임차료 및 관리비 비율은 평균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료 서비스를 위한 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로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 자료원 기본사업비 증가비율이 전년도 대비 2013년 1%, 2014년 1.4% 인 것에 비해 동기 기관운영비 증가비율은 각각 11.1%와 3.7%를 기록. 특히 기관운영비는 예술의전당과 임대계약 갱신 이전인 2009년 430,000천원에 비해 2014년 961,000천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그림 2-3] 3년간 예산 현황



## 2. 사업 현황

### 1) 예술자료 수집

- 예술자료 구입
  - 시중 유통되는 예술자료의 계획적, 선별적 구입으로 예술창작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서 구축
  - 예술일반,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음악 및 기타 분야의 도서, 시청각, 연속간행물, 웹DB 구입
- 공연영상 제작
  - 1979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
  - 현장성이 강한 공연 실태를 기록화 하여 공연예술 특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연예술사 연구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
  - 공연 관련 비유통 부가자료(대본,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 수집 병행
- 예술자료 수증
  - 한국근현대예술사 연구 및 다양한 문화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술자료의 다각적 수집 및 분석
  - 예술가 및 단체 생산 혹은 소장자료 수증
  - 자료 교류 및 이관을 통한 자료 수증

[표 2-7] 최근 3년간 입수자료 현황

	2012	2013	2014
계	14,819	15,000	17,000
수증 (MOU 방식 포함)	11,824	13,000	15,900
구입	2,955	2,679	1,264
제작	40	79	86

※ 2013년 및 2014년 수증자료 건수는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총 수량 역시 대략의 추정치로 기록

- 최근 3년간의 자료 입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구입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제작 및 비유통 실물자료의 수증이 증가.
- 수증방식으로 입수한 실물자료는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입수 자료 대비 정리 자료의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2015년 3월 기준 30만 건 이상의 미등록 자료가 있음.

### 2) 예술자료 활용

- 예술강좌 운영
  - 서초동 본원 및 대학로 본원에서 고전음악, 무용, 미술, 연극, 대중음악, 뮤지컬, 문화콘텐츠, 상영회 등의 대중 강좌 운영
  - 최근 3년간 본원 중심으로 강좌 수강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표 2-8] 최근 3년간 강좌 수강 현황

항목	2012	2013	2014
본원 고전음악강좌(유료)	81	102	91
본원 무용강좌	180	589	293
본원 미술강좌	120	-	-
본원 연극강좌	242	639	734
본원 대중음악강좌	-	532	637
본원 뮤지컬강좌	-	481	662
본원 문화콘텐츠강좌	-	465	-
본원 상영회	-	-	582



## 제2절 예술자료원 운영 현황

## □ 아카이브 전시 및 소개

- 예술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자료 수집 발굴의 창구로 활용
- 2012년 소장자료 소개 프로젝트 '이어달리기' 12회 진행, 열린공간 '통'을 통한 전시 8회 운영
- 2014년 아카이브 전시 4회 운영

## □ 조사연구

-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원로 예술인 구술채록 및 자료집 발간
- 2014년까지 총 256인의 원로 예술인의 생애사 및 주제사 구술 기록 확보
- 구술 채록 과정에서 실물자료 수집도 병행
- 최근 3년간 구술채록 현황

[표 2-9]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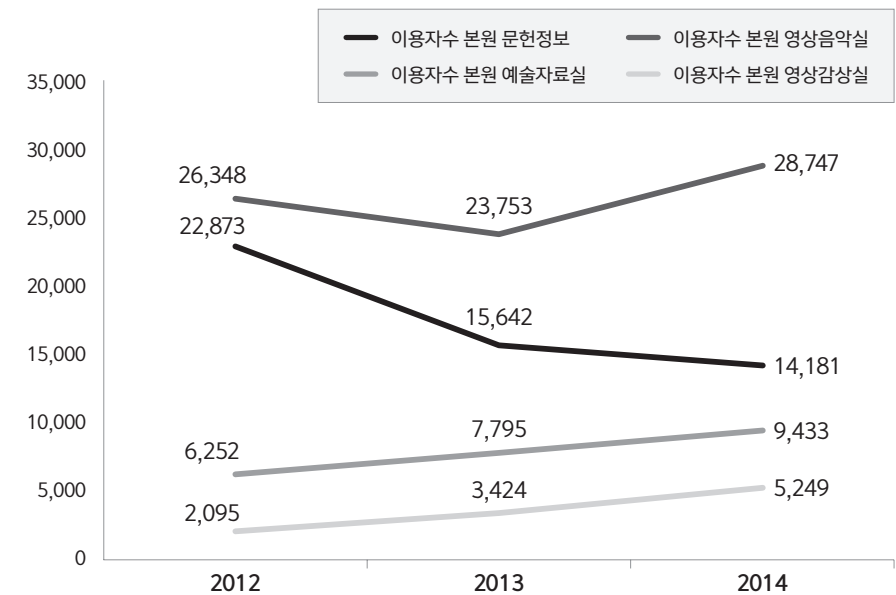
2012	2013	2014
10인	9인	13인

## □ 예술정보 서비스

- 오프라인 예술정보 서비스
  - 서초동 본원 문헌정보실과 영상음악실, 대학로 본원 예술자료실과 영상감상실을 각각 운영
  - 본원 문헌정보실은 시각예술 및 문학분야 서적과 각 예술분야 연속간행물, 기증 자료를 소장하고, 일반인 열람을 지원
  - 본원 영상음악실은 국악, 클래식, 재즈, 민속음악과 관련된 음반 및 영상 자료를 소장하고, 일반인 열람을 지원
  - 본원 예술자료실은 연극 및 무용을 포함하는 공연예술 분야의 단행본, 연속

간행물, 기증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영상감상실은 동 분야 영상자료를 소장하고, 각각 일반인 열람을 지원

[그림 2-4] 최근 3년간 이용현황



- 본원 문헌정보실은 2012년 대비 2014년 이용자수 38% 감소
- 본원 자료실 및 감상실 이용자수는 3년간 증가추세

## □ 온라인 예술정보 서비스

- 예술자료 이용 및 검색, 관리를 지원하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소장자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분류 및 메타 데이터 생성, 2014년 누적 12,000여 점의 소장 예술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 제2절 예술자료원 운영 현황

- 소장자료 및 국내 주요 공공 공연장 자료 디지털화 작업 수행, 2014년 누적 73,348면의 디지털 예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 무대미술자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대미술컬렉션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데이터 디지털화 작업 수행, 2014년 누적 498면의 무대미술자료 디지털화
- 창작음악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악보 2014년 누적 1,087건 및 음원 371건 디지털화
- 온라인 예술정보 페이지(예술자료원 홈페이지, 미술작가 500인 홈페이지,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페이지) 운영
- 최근 3년간 예술정보 페이지 이용 건수

[표 2-10] 최근 3년간 예술 정보 페이지 이용 건수

사이트명	내용	2012	2013	2014
예술자료원 홈페이지	예술자료원 홈페이지	124,383건	132,547건	105,692건
미술작가 500인	국내 저명 작가 500인의 작품과 정보 제공	17,046건	36,802건	90,358건
한국예술디지털 아카이브 (DA-Arts)	예술단체 공동 활용 디지털 저장소 예술자료 관련 기록 제공 원로 예술인 구술기록 제공	130,708건	199,535건	248,381건

- 예술자료원 홈페이지를 제외한 두 사이트의 이용건수는 3년간 증가추세

## □ 전문인력 양성

-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예술기록관리 전문 인력, 구술채록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 기타

- 문화다양성아카이브 구축
  - 2012년과 2013년, 두 해에 걸쳐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보존하는 시스템 개발

## 제3절 예술자료원의 한계와 가능성

## 1. 선행연구의 제안과 현실에서의 제한

## 1) 『예술자료관리 전문화 방안 연구』(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0)

## □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רכ예술포털이 국립예술자료원으로 변모함에 따라 국내 대표 예술아카이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 연구보고서. 예술자료의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립예술자료관의 예술자료관리 현황 분석
- 공연·전시자료의 수집 지침 및 개발 전략
- 공연·전시자료의 활용과 보존 및 재생산 방안
- 예술자료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 □ 연구내용의 현실적 제약

- 수집/보존/관리, 인력 조직, 공간운영 등 예술자료의 기록관리에만 방점
- 예술인에 대한 관심과 창작과정정보는 공연 결과물의 수집, 수집관리 프로세스와 활용에 중점을 둔 비효율적인 기록관리
- 예산, 공간, 이용자, 자료활용 예측 및 자료원의 특성화 도출에 실패

## □ 연구결과의 가능성 및 시사점

- 예술자료원의 미션과 비전: 자료의 집대성과 활용을 통한 예술가치의 재창조, 예술자료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가 허브 센터(예술지식의 집대성, 예술콘텐츠 생산의 플랫폼, 예술창조센터 및 지원기관)
- 벤치마킹 대상기관인 네덜란드 극장연구소 도서관, 독일예술관 공연예술자료실의 주제와 개인아카이브에 대한 분류, 예술창작자료의 수집, 데이터 뱅크 역할, 자료와 지식의 조직화로 일반인의 예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문해(리터러시) 유도, 문화산업(출판, DVD)으로 이익창출

## 제3절 예술자료원의 한계와 가능성

## 2) 『예술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국립예술자료원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과 예술자료의 국가자원화 모색을 위한 정책 모색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로 다음의 연구내용을 수록함
  - 국내·외 예술기록관리 기관의 현황
  - 예술기록관리의 발전방안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시스템 정착 방안

## □ 연구내용의 현실적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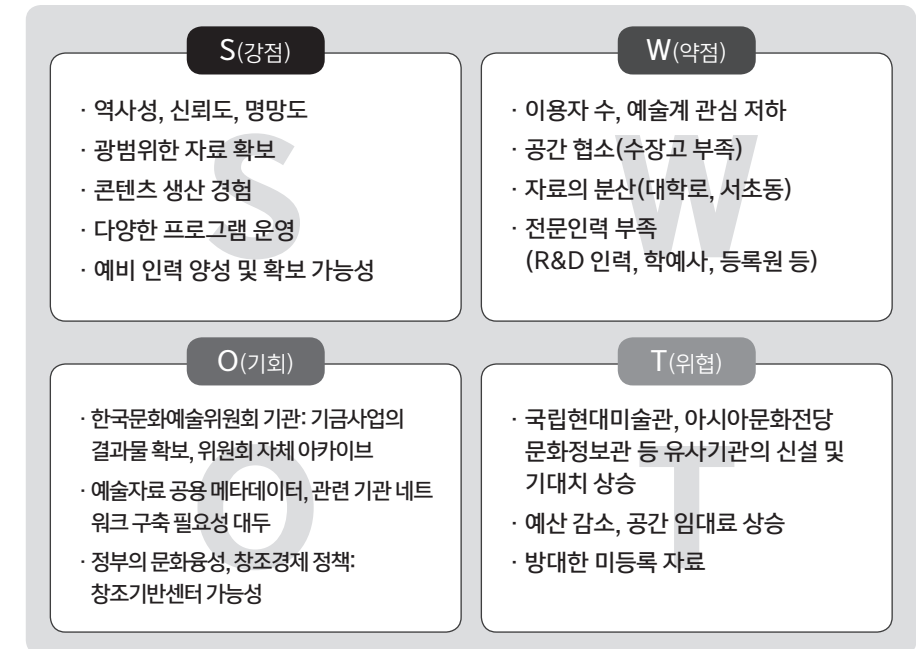
- 국립예술자료원의 존립과 운영을 위한 법제적 근거 마련에 연구의 방점을 두었으나 구체성, 실효성이 미약
- 예술기록관리의 유경험자 혹은 전문연구원 부재와 문헌연구 및 인터넷 조사로 한정됨. (현황분석 위주, 기존연구 혹은 인터넷 자료의 재정리)

## □ 연구결과의 가능성 및 시사점

- 예술기록관리의 이용가치 제고방안
  - 예술자료 정보의 교차서비스를 위한 기관별 데이터 호환성 확대
  - 문화산업으로의 연계 가능성 모색
- 예술기록관리 디지털화 및 기반 조성
  - DA-Arts 시스템의 정착으로 예술자료의 허브센터 위상 확립
  - 리포지터리(예술정보보관소)의 무상제공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
- 예술기록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 예술기록관리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 2. 예술자료원 운영환경에 대한 SWOT 분석

[그림 2-5] SWOT 분석도



## □ 강점요소(S)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재통합되면서 위원회의 명망성, 1979년에 시작된 국내 최초의 예술자료원이라는 역사성으로 예술가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워져서 예술자료 수집이 용이해짐
- 약35년간 지속된 도서, 음반, 동영상, 대본, 인쇄물 등의 수집으로 국내 최대 규모, 최다 범위의 예술자료를 소장
- 전통적이며 수동적인 도서관 수집 시스템을 탈피하여 예술인들로부터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공연과 행사의 녹화, 원로예술인의

## 제3절 예술자료원의 한계와 가능성

구술채록사업 등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등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료 수집 시스템을 운영함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와 문화다양성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예술분야의 디지털정보화와 예술자료를 활용한 강좌, 전시, 연구 분야에서 앞서 있음
- 예술전공자의 취업을 모색하고 예술 특성화 아카이브를 위해 예술기록관리 및 구술채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예비 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

## □ 약점요소(W)

- 수장고, 감상실, 회의실 등 기초 시설이 취약하며, 예산 부족으로 장르별 전문 학예사, 기록연구사, R&D 기획자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자료들이 서초동과 대학로 분관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음
- 기증 자료에 대한 수장고와 등록 인력이 미비하여 원로예술인들은 기증을 주저하게 됨. 예술창조를 위한 영감, 예술연구를 위한 정보와 기술 지원 혹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예술인들의 관심이 저조하며, 분산 배치로 인해 관별 이용자의 수가 급감할 수 밖에 없음

## □ 위협요소(T)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국악원 아카이브 및 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등 유사 기관의 잇따른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통합정보 서비스 개통으로 인해 자료 수집의 범위가 중복될 수 있으며, 전문 인력과 디지털 기술의 취약성으로 예술자료원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뒤쳐질 수 있음
- 재통합 이후 예산은 축소되고 임대료는 상승하여 시설 유지 및 인력비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소요하게 되므로 디지털정보화에 대한 연구 및 시스템 개

편, 자료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신규 사업에 대해 기대할 수 없음. 무엇보다도 방대한 미등록 자료가 방치될 우려가 있음

## □ 기회요소(O)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재통합되면서 문예위의 기금을 받는 모든 예술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확충하여 예술자료 수집 및 기록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술기록관리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 구성을 주도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문화정책기조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에 있으며,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천과 창조경제의 핵심 가치인 상상력과 창의력은 콘텐츠라고 간주하고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상당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음. (예: 콘텐츠코리아랩 신설, 2015년 2월 상암동에 문화창조융합센터 오픈. 올해부터 문화콘텐츠 분야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콘텐츠 455억원, 저작권 70억원, 연구개발 인재양성 32억원 등 총 557억원 투입 예정)
- 현재 문화콘텐츠는 지역, 전통, 현장, 스토리, 기술에 기반을 두고 문화자원을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고유의 브랜드 혹은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으로 변모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의 제작은 무형의 문화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접근하여 수용자(관객, 대중, 소비자)에게 추상적인 환상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며, 예술로 가공하여 전달하는 작업이므로 자원의 원형과 활용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예술자료원은 국가적인 예술 자원 수집 시스템을 구축한 후 예술을 위한 창작지원센터로 위상을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제3장

# 예술자료원 운영 방향의 재정립

제1절: 예술자료원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검토

제2절: 사업 수행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검토

제3절: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검토

제4절: 아카이브에 대한 특이성(Singularity) 검토

## 제1절 예술자료원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검토

- 예술자료원은 1979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설립한 예술분야 전문도서관으로 처음 출발하였음. 예술 분야 전문도서관의 역할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발간한 예술 관련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각종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집하는 한편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팸플릿, 포스터, 사진 등을 수집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종합 예술 전문 도서관으로 입지를 확보하였음.
- 예술 관련 도서관만 아니라 예술 현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고 이를 자원화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과 같은 기록자료의 수집으로 그 사업의 폭을 넓혔고, 예술계의 예술기록관리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국립예술자료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예술 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을 국가적인 센터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 지원 사업과의 체계적인 연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4년 다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재통합되었음.
- 예술자료원은 그 운영의 전통상 예술전문도서관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으며, 2010년도 이후 아카이브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도서관 사업의 규모를 점차 줄이고, 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왔음.
- 예술자료원은 기관 내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을 이관 받아서 기록물을 수집하는 아카이브가 아니고, 예술현장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을 수집하는 매뉴스 크립트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함.
- 국립예술자료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으로서의 축소는 예술기록 관리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퇴행으로 볼 수 있음. 비록 재단법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식 명칭에 국립기관을 표방하는 예술기록 관리 전문 기구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일개 부서는 그 위상에서 아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재통합으로 변화된 위상, 도서관에서 기록관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예술자료원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함.
-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의 체제는 인력이나 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서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고려에서도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함.
- 국가적인 문화 기구로서의 위상에 대한 고려
  - 예술자료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그 위상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국립예술자료원의 사업 방향을 그대로 승계해서 국가적인 예술기록 전문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방향
    - 둘째, 예술위원회 내부 생산 기록 및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는 예술위원회 아카이브
    -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록관
  - 예술위원회와의 재통합으로 예술자료원의 위상과 역할을 문예진흥기금사업 아카이브로 대폭 축소하고, 문예진흥기금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예술자료원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며, 예술자료원의 사업예산을 국고로 투입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재통합에도 불구하고, 예술자료원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 국고를 통해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예술자료원의 사업과 위상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부속기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함. 국가적인 규모에서의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아카이브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예술자료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되는 기



## 제1절 예술자료원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검토

- 기록물 관리 기구로서의 위상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은 기존의 예술자료원이 수행했던 역할과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이 수행할 이유나 명분을 갖추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술자료원은 국립예술자료원의 미션과 비전을 그대로 승계해서 국가적인 규모의 예술기록관리 전문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명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그렇지만 그 인력과 예산 규모가 영세하여 국가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움이 있으며, 인력과 예산의 대규모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실제적인 역할에 대한 축소와 재조정은 불가피함

## □ 도서관과 기록관 기능

- 현재 예술자료원의 기능은 도서관과 기록관이 혼재되어 있으며, 국립예술자료원 출범 이후로 지속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축소하고 기록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음
- 예술자료원의 서비스와 공간 구성의 측면에서 도서관적인 전통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으며, 다른 기록보존기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열람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국립예술자료원 출범 이후 도서관 자료의 구입은 급격하고 감소하고 있으나, 외형적인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고객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정체성과 서비스의 방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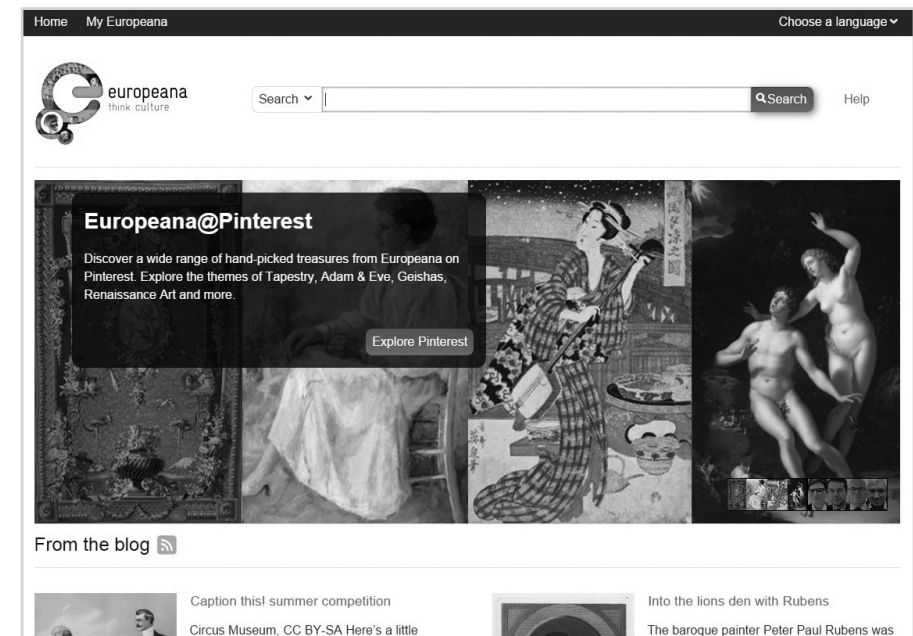
## □ 예술사 연구와 서술을 위한 국가적인 기록센터/연구센터로 방향성을 재정립

- 공간, 자료, 서비스에서 도서관적인 요소를 대폭 축소(문헌정보실 폐지, 열람시간 조정, 도서 및 연속간행물 구독 중단,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중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울러 기록연구센터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예산에서 시설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고 있어서

- 문헌정보실 등 운영 공간의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르는 서비스 중단(회원 서비스 중단)과 기존 장서의 처리 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 필요
- 기록물의 수집은 예술사적 가치에 따르는 기획 수집 영역과 문예진흥기금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과의 시스템적인 연계에 입각한 자동 수집 영역으로 이원화해서 진행
- 사서와 행정직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력 구조도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원 등 조사와 연구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점진적으로 개편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무형유산원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술 전 장르를 아우르는 국가적인 기록 연구 센터로서 고유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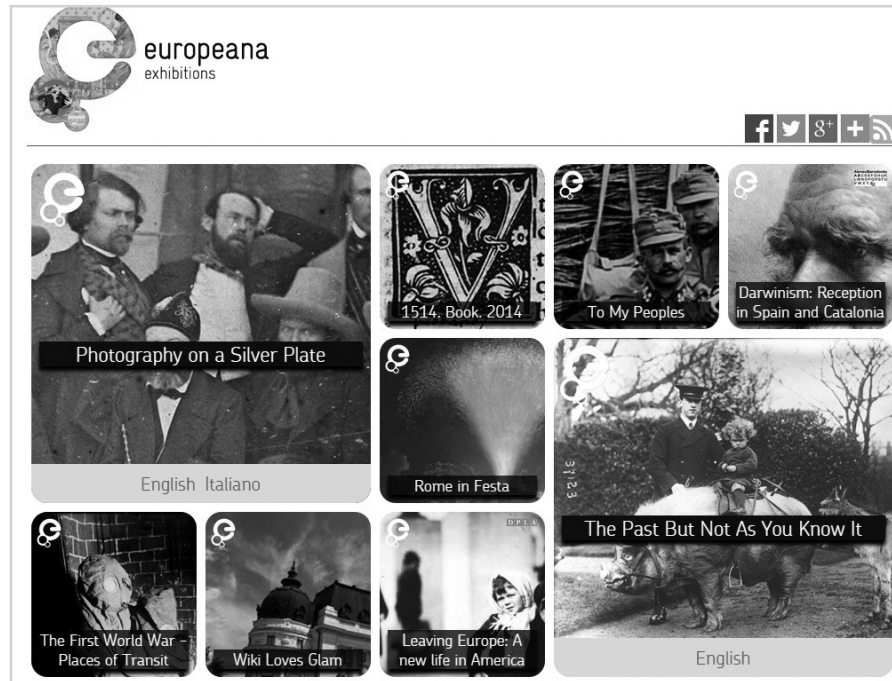
## &lt;참고 사례 1&gt; Europeana

[그림 3-1] European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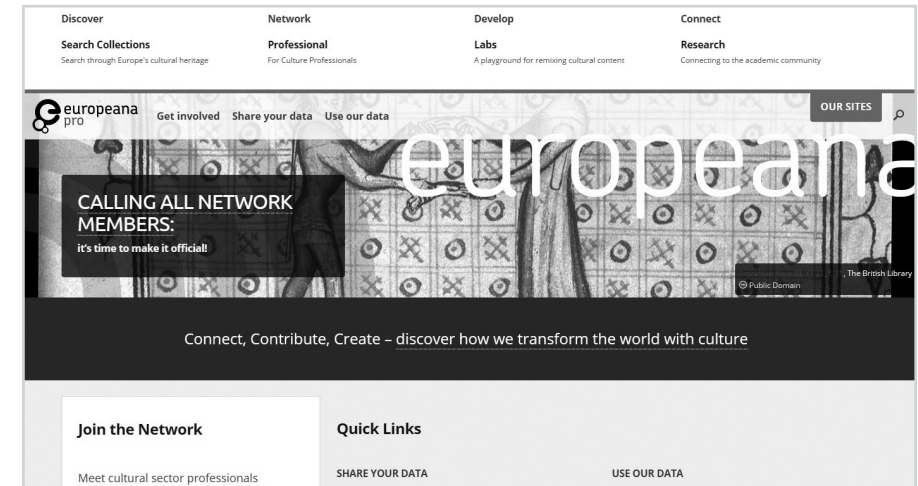
## 제1절 예술자료원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검토

[그림 3-2] European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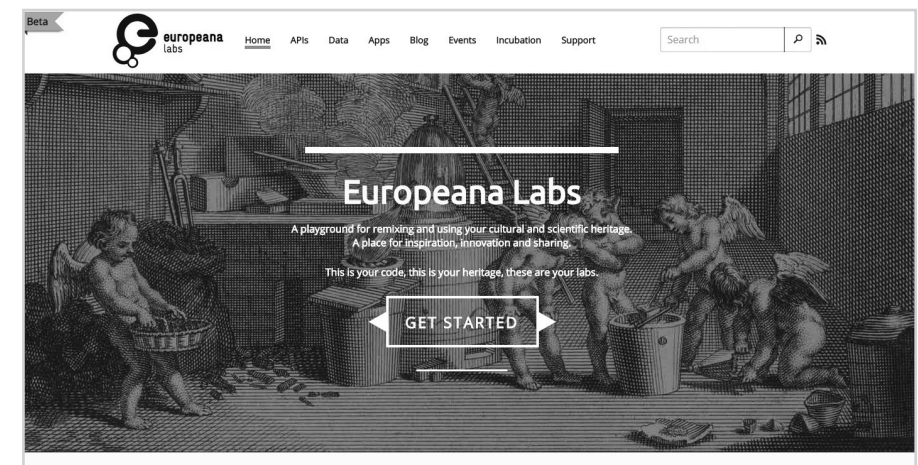
- 유럽연합에서 2008년 오픈한 디지털 문화자원 공유 프로젝트로 유럽 소재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기록관 등 3,300여 개 기관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로 현재 37개국의 콘텐츠를 30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39백만 디지털 아이템(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이 중 이미지 아이템이 23백만건, 텍스트가 15백만건에 해당함.
- EDM(Europeana Data Model)과 같은 디지털화 표준, 디지털 개체의 메타데이터 표준, 각각의 메타데이터 링크 시스템의 표준 등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사업 추진.
- 기본 검색 사이트 이외에 블로그, 전시, 특수 프로젝트 사이트, 인터랙티브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중.
- 프로페셔널 사이트를 통해 문화자원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디지털 표준 개발 랩, 연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그림 3-3] Europeana.3



- 유로피아나 랩을 통해 사용 중인 기술 데이터 정보를 공유
- 디지털아이템 메타데이터 구조 : 기본 필드는 creator, date, type, identifier로 구성되고, 관계 항목으로 relation, is part of (포괄적 관계 정의에 사용되는 속성), 부가 필드로 language, rights, publisher, source, data provider, provider, providing country 등이 존재.

[그림 3-4] Europeana.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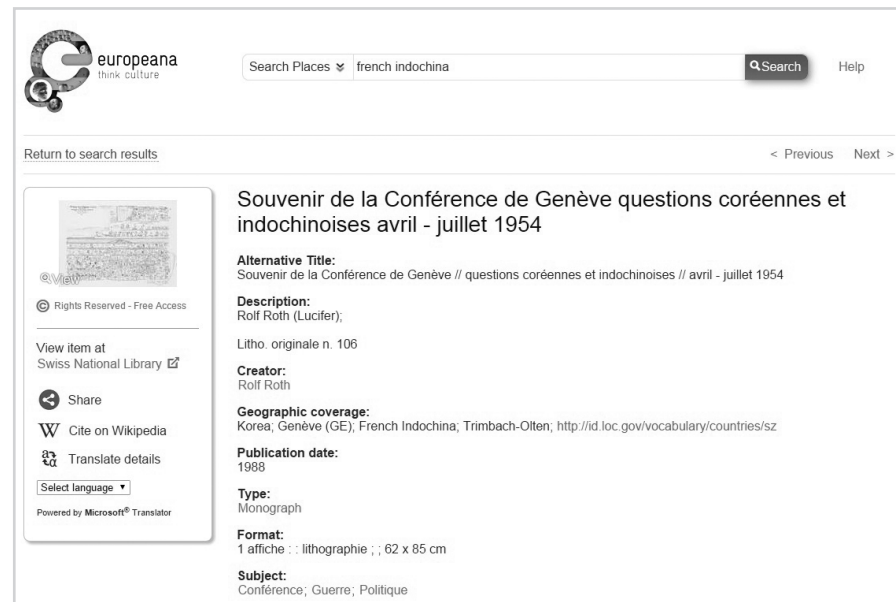




## 제1절 예술자료원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검토

- 각 데이터 개체는 'is part of'로 이벤트 및 저장소, 상위 컬렉션과의 관계성을 부여받으며, 이벤트 중심의 데이터 세트 구성을 가능하도록 지원.
- 검색은 주제어, 표제, 창작자, 시기, 장소 등의 세부검색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체 필드의 자연어 검색을 지원.
- 소장처의 웹사이트와 연동하며, 소장처 웹사이트에서 상세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3-5] Europeana.5



## □ 시사점

- 개별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예술 자료의 디지털 개체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하는 것은 예술자료원의 유력한 사업 방향의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개체의 공유와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표준 플랫폼 및 메타 데이터 스키마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서비스 구축 시 표준플랫폼과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개발과 제공 등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 필요.

## 제2절 사업 수행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검토

- 국립예술자료원은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록물을 수집해서 국가적인 자원화하는 사업을 담당하였음. 이는 국립예술자료원의 사업 영역에 문학이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재통합으로 말미암아 기록물 수집 범위에 문학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문학 부문에서의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문학 부문을 기록물 수집의 범위에서 온전히 배제하기는 실제로 어려움.
  - 문학을 예술자료원의 적극적인 사업 영역으로 채택하기는 어렵지만,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수행 결과로 파생하는 기록물이나 관련 인프라를 통해서 생성되는 기록과 정보들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관리를 수행할 필요도 존재함
- 따라서 문학 분야를 기록물 수집 범위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인 범위에서 모든 예술 장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되, 예술자료원이 직접 기록물을 수집하는 체제 보다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자동적인 이관이나 그 밖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는 편이 바람직함.

## &lt;참고 사례 2&gt; 한국문학관협회 소장자료 DB

- 현재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소장자료 통합목록과 소장자료 디지털화의 추진을 일정 정도 진행하였으나, 목록 구성과 디지털화 작업이 전문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고 있어 예술자료원의 통합적인 영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한계점: 한국문학관협회가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전국 58개 문학관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는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인에 관한 기록의 정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음. 그렇지만 개별 문학관 위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통합적인 활용은 어려움.
- 시사점: 전국의 '문학관'이 수집하고 관리하는 소장품의 대부분은 예술자료원이 수집하는 기록물들과 매우 유사하며, 문학관에서 수집한 작가와 관련된 각종 기록물들을 활용하여 예술가아카이브의 전형적인 사례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그림 3-6] 한국문학관협회가 구축한 전국 58개 문학관 소장자료 DB 1



[그림 3-7] 한국문학관협회가 구축한 전국 58개 문학관 소장자료 DB 2



#### □ 기록물을 직접 수집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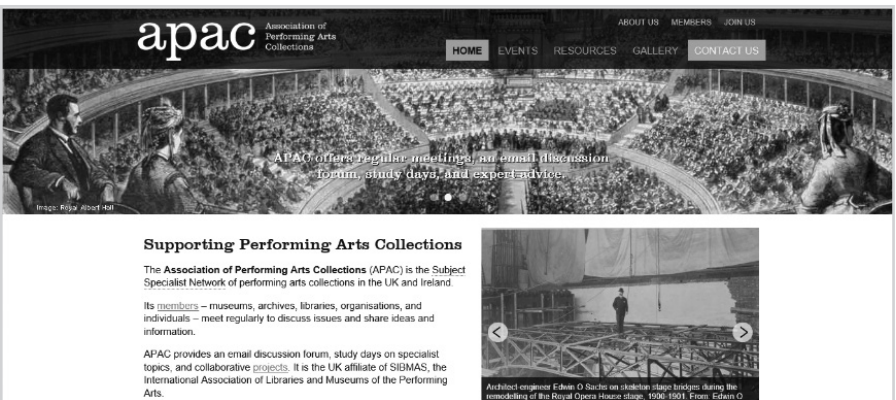
- 예술자료원은 일반적인 기록물 관리기구와는 달리 기록물 생산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음.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 기록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임. 그렇지만 그 생산 주체가 예술가 개인이거나 민간 예술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술 활동마다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기록물의 종류가 매우 상이한 까닭에 특정 기록물의 납본이나 이관을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 예술기록은 적극적인 기획과 수집 활동의 산물이며, 이러한 기획과 수집의 과정은 이관이나 납본, 구매와 같은 일괄적인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 소요가 필요함
- 예술자료원이 우리나라 예술사 서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국가적인 취지와 목표로 활동하려면, 지금보다 2-3배에 달하는 인력의 투입이 필요함. 지금처럼 10~20명 정도의 소규모 인력의 산발적인 투입으로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실제로 불가능함
- 그렇지만 향후 인력과 예산의 대규모 확장은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사업 구조의 개편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관련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술자료원의 자료 수집을 이원화된 기준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예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발굴 등의 적극적인 수집 행위가 필요한 부분은 예술자료원이 직접 기록물 수집과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예술위원회 내부의 제도나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나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서 기록물 수집과 관리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술위원회의 예술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지역문화재단) 아카이브나 민간(개인 문학관, 한국출문화자료원, 이찬주춤자료관, 연낙재 등) 아카이브 또는 관심 있는 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금전적 또는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새롭게 개

제2절 사업 수행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검토

발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역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참고 사례 3> 영국과 아일랜드의 공연예술아카이브협의회

[그림 3-8] apac홈페이지



- 영국과 아일랜드 지역의 공연예술아카이브로 특성화된 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유관 연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 인문학 소속 기관들의 통합 검색 시스템 제공
  - 예술기록보존 및 표준 메타데이터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 정기적인 포럼 개최로 최신 동향과 정보 공유
  - 온라인 및 SNS를 통한 오픈 토론
- 시사점
  - 예술자료원을 중심으로 유관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술기록 생태계를 조성
  - 예술기록관리의 확산에 필요한 협력 채널 및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기적인 포럼 및 오픈 토론을 통해 예술기록관리를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및 민간단체를 위한 지원 사업 개발
  - 예술기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무적인 표준의 보급과 개발

<참고 사례 4>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자료수집

- 기초학문자료센터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의 연구 성과물 관리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국가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있음.

[그림 3-9]기초학문자료센터.1



1. 시스템을 통한 기록물 자동 수집(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 관련 기록물 및 결과물 업로드):  
연구재단의 고유 업무인 연구자 지원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예컨대 연구계획서, 설문조사 문구, 결과데이터, 인터뷰 녹취문 등)과 연구 성과물을 시스템에 탑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데이터의 수집 및 메타데이터의 입력 등 모든 작업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탑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결과물은 모두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향후 자신의 이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단행본, 보고서, 논문, 조사자료, 이미지, 동영상, 녹음자료, 웹사이트 등이 망라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2. 자체 사업과 용어사전 구축
  -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각각을 성균관대학교 사업단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사업단에 위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연구자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 및 메타데이터 조직화 작업)
  - 연구용어 사전 구축
    - 연구용어 시소러스 구축(용어 사이의 상관 관계, 동의어, 유의어, 관련어 등의 관계에 대한 사전 구축)

제2절 사업 수행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검토

3. 연구재단 지원사업과 DB구축 연계(토대연구 DB 구축)

[그림 3-10] 기초학문자료센터.2

구분	원자료	중간산출물
정의	연구자가 자료의 생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한 자료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단이 지원한 연구를 연구활동에 투입하여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생산하여 연구에 활용한 자료 일체</li><li>· 진행 중인 연구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문헌 자료 (※ 출판되지 않은 회색문헌도 포함)</li></ul>
자료 유형	<p>1) 타인(타기관)이 생산한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센서스</li><li>· 표본조사자료(선거 여론조사, 전국가족조사, 도시가계조사 등)</li><li>· 경제 및 행정 통계</li><li>· 자료 정부기록문서(실록, 외교문서)</li><li>· 호적, 민간 기록문서, 문집, 전기 서한 등</li><li>· 관찰 면접 기술 채록</li></ul> <p>2) 타인(타기관)이 출판한 문헌자료</p> <p>타인(타기관) 생산 연구 결과물 (논문, 저역서, 연구결과보고서 등)</p> <p>(※A연구의 연구자가 B연구의 연구자가 생산한 중간 산출물 또는 연구결과물을 연구에 활용한 경우, 이 자료는 A연구 입장에서 원자료가 됨)</p>	<p>1)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생산한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직접 생산한 조사자료(Micro Data)</li><li>· 직접 생산한 관찰, 면접, 구술, 채록</li><li>· 직접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li><li>· 학술대회 발표 자료(프로시딩)</li><li>· Pre-Prints(출판전 연구결과, 학술논문의 경우 최초 투고 논문)</li><li>· 연구팀 회의기록</li><li>· 연구팀 자체 발간 보고서/출판물</li></ul> <p>2) 타인(타기관)이 생산한 원자료를 활용한 연구자 직접 생산한 2차적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통계표(통계자료)(Maxro Data)</li></ul>

- 연구재단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문별 토대에 해당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기초학문자료센터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 활용.
- 현재 20개의 문화, 인문, 역사 분야의 원자료 및 메타데이터 DB 공유.
- 각 데이터베이스 별로 독립 페이지를 운영하고, 특성에 맞춘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검색 및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를 제공.

[그림 3-11] 기초학문자료센터.3



-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개요 및 관련 성과물 목록과 링크 제공.

[그림 3-12] 기초학문자료센터.4



- 외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 발주된 연구과제 결과물 공유를 위한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제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메타데이터 도출을 수행하여, 보존과 활용을 도모.
- 연구 과정 중에 수집된 원자료와 관련 메타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공유함으로써, 연구 성과물의 확산 도모.
- 기 구축된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표준화 외의 정보 제공 방식을 적극 수용.



## 제2절 사업 수행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검토

## 4. 시사점

- 연구재단의 학술연구지원은 공적 재원을 개인의 활동을 위해서 투입한다는 측면에서 예술위원회의 예술창작지원사업과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음. 학술연구지원 수혜자들에게 해당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간결과물과 최종성과물과 관련된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록물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수혜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지원 사업 수혜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화 및 입력 시스템 활용 등은 문예진흥기금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전액 지원은 학술연구지원과 일부 지원인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조금은 완화된 기준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기초학문자료센터는 지원사업 수혜자들의 직접 자료 제출,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자체 사업, 연구재단의 지원 사업 가운데 연계된 사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 구조는 예술자료원에서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가운데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이나 민간의 예술아카이브의 소장기록물 가운데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관련 결과물을 예술자료원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개발
- 아울러 예술 기록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표준 또는 모범 사례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록물이 하나의 서비스 체계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검색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lt;참고 사례 4&gt;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그림 3-13] RISS



- RISS는 대학도서관 소장도서관의 종합목록으로 전국의 대학도서관들이 소장한 도서관의 통합검색과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들이 대학 구성원(교수, 대학원생)이 생산한 학술저서, 논문, 학위논문 등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을 위해서 D-Collection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그 운영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전자도서관 플랫폼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음.

1. RISS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RISS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보수, 관련 표준에 대한 교육 및 데이터 품질관리, D-Collection 개발과 유지보수, 해외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구매, 대학도서관 사서의 재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제2절 사업 수행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검토

## 2. 시사점

- RISS는 전국대학도서관 종합목록에 해당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RISS의 운영을 위해서 개별 자료를 구입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며, 다만 단위 도서관들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 표준화지원,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예술자료원이 국가적인 예술기록관리의 허브로서의 미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도서관으로서의 자료 수집과 정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단위기구들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서, 예술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기구들의 활동을 양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RISS의 경우에는 대학도서관이라는 뚜렷한 실체를 가진 기구가 하부 조직으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가 예술자료원에 비해서 비교적 용이한 측면이 존재함

## □ 기록물 수집의 방법과 범위

## - 예술기록의 범위

- 예술 활동은 예술작품의 창작과 전달, 감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각각의 국면에서 매우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그 종류나 수집 방법을 특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며, 각각의 실물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 표 3-1은 예술활동의 각각의 국면에서 발생하는 기록을 범주화시킨 것(설문원, 2011)으로 예술작품의 창작, 전달, 감상의 각 단계마다 서로 상이한 주체에게서 기록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기록의 체계적이고 완전한 수집을 위해서는 생산 주체가 수집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체가 수집 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가능할 것임
- 예술자료원은 예술 창작이나 전달, 감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록물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물 기록의 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많은 비용과 인력의 투입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표 3-1] 예술활동의 유형에 따른 예술기록의 종류

예술 활동의 유형		기록의 범주
창작	1차 창작	- 예술작품의 창작과정 중에 생산되는 기록(소설, 연극 대본, 음악 등) - 창작의 주체인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생산·접수한 기록 - 창작과정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생산된 기록(구술기록 포함)
	2차 창작	- 음악, 무용, 연극, 오페라 등의 공연과 실연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 - 연주자, 연기자, 지휘자, 연출자, 공연단체, 극장 등이 생산, 접수한 기록 - 공연 준비 및 실연 과정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생산된 기록(구술기록 포함)
전달		- 전시, 출판 등의 발표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 - 큐레이터, 미술관, 화랑, 출판사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
감상		예술작품 및 연주, 공연 등에 대한 비평, 언론보도, 연구자료

\*출처: 설문원(2011)

- 예술기록은 그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생산 주체에게서 매우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관련 기록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기록물 수집과 정리 단계 이전에 엄격한 선별과 평가를 거쳐서 실물자료를 직접 수집할 것과 문예진흥기금사업이나 연계 사업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수집할 기록을 이원화해서 취급할 필요가 있음.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할 기록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기록 수집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예술위원회 또는 지방문화재단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수되는 기록물은 디지털 기록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록물 수집과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서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예술기록 수집 전략의 이원화
  - 예술사적, 정보적, 증거적 가치를 지닌 귀중 및 수집 기록은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을 동시에 수집하고 아울러 아날로그 기록물의 디지털화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문예진흥기금 관련 사업, 지역 문예진흥기금 관련 사업 등 일부 기록물은

## 제2절 사업 수행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검토

자동 수집되는 디지털 기록물로 수집 범위를 제한하여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록물 수집과 별도로 기록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예술사적 가치를 지닌 작품과 작가에 대한 메타 정보 수집과 조사 작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실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록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정보를 수집/정리해서 예술사적 의미를 축적
- 동명이인, 동의어, 유의어 등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정보검색에 반영
- 〈문예연감〉의 발행 등과 연계하여 매년 발생하는 예술 관련 사실 정보 수집 체계 확립 (〈문예연감〉 기초 통계 데이터베이스 작성 업무의 예술자료원 이관에 대한 검토 필요)

## □ 시사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문예연감〉의 결과물을 취합하는 통합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술가 포트폴리오 및 창작 작품에 대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메타데이터의 항목을 DB를 위한 필요 값만 기재하도록 최대한 단순화시켜 예술가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이며 신속한 업데이트, 영문 텍스트 번역이 구비된다면 국내 예술의 동향을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신속하게 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교류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음

## &lt;참고 사례 5&gt; 일본 문화청의 문화내셔널아카이브

## □ 일본의 문화예술 정체성 확립과 활용영역 확대를 위한 진흥사업의 일환

- 일본의 창작작품 관련 정보, 소장 정보, 관련 기관 정보, 행사 및 이벤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미래 문화예술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해외에서의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시작
- 2010년 시작하여 미디어예술DB가 올해 완료되었으며 전 예술분야로 확장될 예정
-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및 단순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특징

[그림 3-14] RISS



\*출처: ITMedia(2015.03.17, <http://www.itmedia.co.jp>)

## 제3절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검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사업 및 전국의 지방문화재단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 사업 결과물의 제출 및 정산 보고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문화재단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증빙 자료와 정산 보고를 받고 있음.
- 동 시스템은 예술가별로 개인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당 정보를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작가 포트폴리오로 확장·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현재 정산과 결과물 제출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DA-Arts) 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할 경우에 관련 기록물을 제출하고 저장하는 통로로 활용하면 예술기록 수집과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됨.
  - 동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재 활동 중인 작가들의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전거 파일로 삼아서 시소러스, LOD, 온톨로지 등으로 확장·발전시킬 수 있음
-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절부터 현재까지 예술자료원은 지속해서 문예진흥기금사업 결과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상의 실물 기록 이관은 현재의 예술자료원 직원의 규모나 업무 구조로는 효과적인 기록 관리의 방안이 되기 어려움. 실제 문예진흥기금사업 결과물 이관분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미정리 상태로 남아 있으며, 실물 자료의 이관은 미정리 자료의 증가를 가져올 뿐임.
- 문예진흥기금 지원 신청 및 결과 보고 제출 시 관련 기록물 및 포트폴리오 제출 의무화에 대한 검토 필요.

[그림 3-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lt;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gt;

주관기관	공고명	접수 시작일	접수 마감일	상세정보	추가지원정보
대관료지원사업추진단	2015 대관료지원사업 공모	2015-07-01	2015-07-31	상세보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연극 창작산실 대본공모	2015-07-01	2015-07-31	상세보기	추가 3건
부산문화재단	2015년도 예술인 지원사업 사업공고	2015-07-15	2015-08-07		추가 2건
강원문화재단	2015년 창작대위지원	2015-07-15	2015-08-14		추가 2건

- 제출된 자료를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DA-Arts)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입력하는 체계로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며, DA-Arts 시스템과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작업이 필요
- 수작업을 통한 결과물 제출이 오랜 동안 이루어졌으나 기록물과 메타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이를 기록물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자료 제출과 메타데이터 입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내역이 예술자료원의 메타데이터 체계와 연동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연동 필요
- 기록물 제출 의무화가 지원금을 수혜 받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새로운 규제나 의무의 부과로 인식되지 않도록 기록물 제출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록물 제출의 프로세스와 용량을 기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제출 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그 형식과 포맷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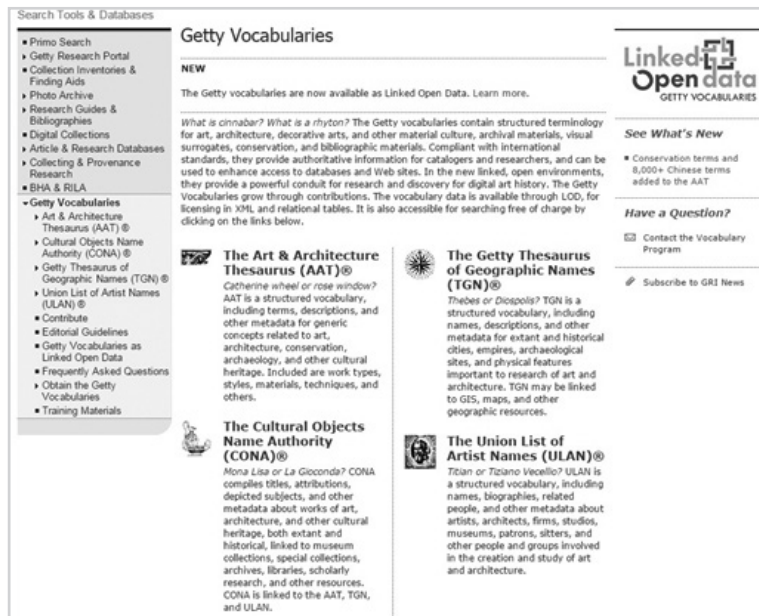
## 제3절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검토

<참고 사례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 | Getty 용어사전 |

- Getty 재단은 미술 분야 정보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 사전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LOD 등으로 확대·발전시켜서 타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서 함께 활용하고 있음.
- 용어사전은 AAT(The Art & Architecture Thesaurus), ULAN(The Union list of Artist Names), CONA(The Cultural Objects Name Authority), TGN(The Getty Thesaurus of Geographic Names)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AAT는 미술과 건축 분야의 주요 개념어와 용어들을 정리한 전문용어사전으로, 단순히 용어와 그 뜻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용어 사이의 계층 및 유사 관계 등을 정리한 정보검색을 위한 시소러스로 구축이 되었으며, ULAN은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는 미술 작가의 성명 표기법, 생애정보, 관련 인물, 기관 및 작품들과 관련된 기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표준 인명집으로 활용되고 있음. CONA는 예술작품이나 저작 등과 같은 문화적인 객체 가운데 별도의 사전으로 구축이 될 필요가 있을 만한 것들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해당 작품에 대한 통일 표제 등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폭넓게 확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한편 TGN은 지역명과 관련된 시소러스로 문화유산이나 예술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과 연계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그림 3-16] Getty 용어 사전



- 최근 게티재단은 용어사전을 LOD로 발행하여 외부에서도 손쉽게 관련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음.
- 시사점
  - 연구 및 디지털 플랫폼에 활용될 수 있는 표준 용어집의 개발 및 공유
  - 표준표목의 제공 이외에도 용어간의 관계도 정리
  -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있어 표준 용어의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로 관련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예술가 정보,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의 작품정보 등과 연계하여 확장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특히 예술자료원이 2010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은 FRBR(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의 개념을 차용하여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게티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용어사전이 구축이 되어 정보서비스와 효과적으로 연계된다면 보다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함.

## 제4절 아카이브에 대한 특이성(Singularity) 검토

- IT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삶과 예술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미래학자들은 기술의 궁극으로 인해 특이한 세계가 펼쳐질 것을 예측하며 이러한 '특이성(Singularity)'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함.
  - '특이성'은 기술의 궁극으로 인한 특이한 세계, 미래 혹은 초월의 세계를 의미하며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몬드 커즈와일(Ray Kurzweil)의 저서 『특이성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2005)에서 유래함
  - 커즈와일은 MIT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수많은 발명을 해서 '에디슨의 진정한 후계자'란 평을 받고 있음. 그는 자신의 이론을 실천하기 위해 미국 서부의 미국항공우주국(NASA) 연구소 부지에 싱귤래리티 대학(Singularity University)을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싱귤래리티대학은 항공우주국(NASA)이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곳으로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며, 인류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까지 연결시키는 대학원으로 유명함
- 국내에서는 '특이성'을 연구하기 위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김대식 KAIST 교수 등이 모여 인류와 기술의 공존을 모색하는 플랫폼인 '싱귤래리티 99(<http://www.singularity99.com>)'를 발족함. 이에 앞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모임으로 (사)유엔미래포럼과 SERI의 미래예측포럼 등이 있음.
- 미래학자들이 제시한 다가올 미래의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에 대한 특이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책이 없는 도서관: 전통적인 도서관은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버전으로 수리 및 교체, 교환, 변화

- 창의력을 설계하는 공간: 인간의 창의력과 마음을 자극하도록 설계하게 되는 도서관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며, 도심의 번잡함에서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수행
- 건물 기능의 변화: 도서관의 건물 기능이 변형되는데, 일부는 쇼핑센터에 맞게 재구성되거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장소로 변하고 있음
-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제시한 '미래 박물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향' 중 예술아카이브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관계의 법칙: 변화의 핵심문제는 관계의 개념에 달려 있음. 오락과 교육의 대안으로서 바쁜 사람들과 박물관은 관련이 되어 있음. 구글은 박물관과의 관계를 측정하는데 웹페이지, 광고, 개별 검색결과와 중요성을 주로 이용하며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계 수치를 측정함. 그 수치로 박물관 경험의 순위를 결정함
  - 시장에 대한 리뷰: 중요한 것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문, 잡지, 라디오 방송국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탄탄한 명성은 양로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내기에 좋음. 박물관은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유인하는가? 박물관이 정기적으로 주간 업데이트되는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15세에서 35세의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됨. 그렇지 못하다면 새로운 기술에 뒤떨어진 것임. 거의 모든 기업이 이러한 경향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음
  - 무료 운동: 무료 혹은 거의 차별화되지 않은 가격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할 필요가 있음. 가격 장벽을 제거하면 박물관은 운영될 수 있음. 무료 회원가입이 모든 것이 무료임을 뜻하지 않음. 박물관은 쇼, 특별한 행사, 유료 전시회, 자체 고유 상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음.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게 얻는 수익은 게이트 입장료보다 훨씬 중요함
  - 서프라이즈 요소: 사람들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을 보러 박물관에 오는

## 제4절 아카이브에 대한 특이성(Singularity) 검토

것이 아니며, 그들은 놀라고 싶어 함. 이것은 걸으면서 얻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장소가 아닌 참신함이 중심이 되어야 함. 사람들은 방문할 때마다 놀랄 것을 요구함. 정적인 콘텐츠는 젊음이 지난 과거를 뜻하며 결국 죽음을 의미함

- 참여하는 경험: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만 하는 안락함을 원하지 않으며, 참여하여 기여하고 무언가를 남기며 소유하고 싶어 함. ‘이것은 알 필요가 있다’는 하향식 사고방식은 ‘배우고 싶은 것’을 찾는 방문객과 맞지 않음. 참여는 존중하고 있다는 또 다른 방법임
- 유체 역학: 기성세대로선 이해 안될 수도 있지만 10대의 일부는 한 달에 평균 2만 8천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이들은 쉽게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음. 수익성 없는 사업 모델은 과거 문화의 수호자로서 존재할 뿐임. 게임의 관계 법칙을 이용한 박물관에 기회가 오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변할 수 있음

□ 미래학자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 팀에 참여하고, 자신의 기여를 추가하고, 지분을 요구한다고 함. 따라서 도서관이나 자료원은 이를 반영하여 스스로 기술 제공을 확장하고 생산도구를 만들고, 사업 확장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다음은 그들이 제시하는 도서관이나 자료원의 부가사업 중 몇 가지 예시임.

- 팟 캐스트 스튜디오: 오디오 캡처 및 오디오 편집 스테이션으로 팟 캐스트를 진행할 초보자를 교육시키고 활성화하고 온라인에 팟캐스트 서비스를 시작함
- 비디오 스튜디오: 비디오 캡처 및 영상 편집 스테이션 팟 캐스팅의 비디오 버전 사업을 함. 이 스튜디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창조적인 사람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 유치,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창업을 지원함

- 가상현실 스테이션: 미래 사업이 운영, 수행될 도서관에 400개 이상의 회사를 만들 수 있음. 모든 것이 가상현실이어서 많은 장소가 필요 없음.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가상 세계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 창업 현실임
- 검색센터: 도서관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찾고 있음. 때때로 그들은 특정 데이터 포인트나 자신이 검색하는 정보에 대해 정밀하고 정확도를 요구함. 이때 정보관리사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함없이 도움을 제공하면서 사업화할 수 있음. 검색센터는 방문자들에게 손쉽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줌
- 미니극장: 미니극장은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아동이나 고령인들이 필요로 하는 손쉬운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음. 또한, 간담회를 필요로 하는 그룹들에게 회의장소로도 사용하게 해줌
- 사이버 카페: 방문자의 대부분은 온라인 접속을 원함. 도서관은 캐주얼한 정보에서 예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정보를 찾는 사이버 카페를 만들 수 있음.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 및 효율성, 안전한 장소와 휴식공간 등을 찾고 있음. 커피 키오스크 및 식사제공, 사내 도서관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보육 시설: 도서관은 보육 시설과 고유의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음. 보육사업 기관들과 협업하거나 유료 탁아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의 직원 및 관리자를 둘 수 있음. 라이브러리 자원을 활용하고 사회의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상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제4장

# 예술자료원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한 제안

제1절: 국가예술아카이브로서의 정체성 정립과 활동 정비

제2절: 예술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기록물 수집 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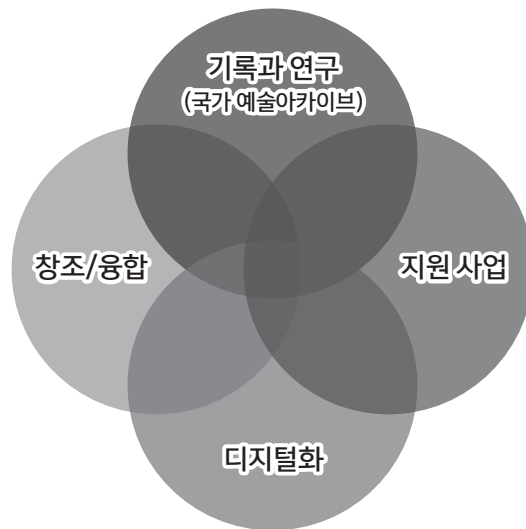
제3절: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DA-Arts) 운영 활성화

제4절: 기억 저장소에서 창조지원센터로

## 제1절 국가예술아카이브로서의 정체성 정립과 활동 정비

- 예술기록관리에서 예술기록관리 생태계 조성으로 패러다임 변화
  - 예술자료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국립예술자료원의 국가예술아카이브로서의 미션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의 인력과 예산 규모로는 완결성을 갖춘 아카이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거나 운영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움
  - 현장에서의 예술기록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과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한 예술기록 관리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술자료원의 사업도 예술기록의 직접적인 수집과 관리에서 예술기록생태계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생태계를 어떻게 통합하고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예술자료원이 수행해야 할 직접 사업의 영역에 해당될 것임

[그림 4-1] 예술자료원 중점 운영 방향



- 이러한 방향 전환을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서비스를 향후 운영 방향성에 맞추어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문헌정보실 운영 폐지 및 오프라인 서비스의 규모 축소
  - 예술자료원은 도서관으로 운영되어 온 오랜 전통으로 말미암아 아카이브로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공간과 인력, 시간을 서비스에 할애하고 있음
  - 그렇지만 최근 오프라인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공간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예술의전당은 매년 임차료와 관리비를 5%씩 인상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다른 사업으로 투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예술자료원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 문헌정보실의 이용자서비스는 완벽한 도서관 서비스에 해당되며, 1979년 자료관이 처음으로 개관하던 당시와는 달리 이를 대체할 다른 문화시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향후 문헌정보실을 폐쇄하고 관련 공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나 보다 시급한 영역으로 투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오프라인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제공 시간도 함께 단축될 필요가 있음. 예술자료원의 정체성이나 사업 방향과는 무관한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적인 감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열람시간 자체의 축소도 함께 필요함
  - 서비스 비용 및 운영 비용 감소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임차료의 부담이 적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나 수장고 신축과 건립 등을 향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영상음악실과 대학로 분원 운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운영

- 예술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표준의 개발과 보급, 교육사업 수행



## 제1절 국가예술아카이브로서의 정체성 정립과 활동 정비

- 예술기록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예술기록 관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양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양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무적인 표준의 보급과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개발된 표준을 수요자들에게 교육하는 역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예술자료원 근무 직원들이 관련 표준의 보급과 개발 및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예술자료원 직원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예술기록 관리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또한 교육하는 일이 될 것임. (여기에서 다루게 될 표준의 범위에는 기록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 사양, 메타데이터 요소, 메타데이터 입력 방법 등을 두루 포함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예술기록의 선별과 평가에 따른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르는 제한적인 기록물 수집.(예술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에 대한 직접 수집 활동)
- 예술기록의 수집은 예술아카이브 업무의 시작으로, 이는 곧 기록물의 생애 자체를 연장시키고, 기록물 자체에 사회적인 생명을 부여해주는 과정의 시작임. 예술자료원이 직접 사업을 지양하고 예술기록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그 방향으로 사업 수행 방법을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예술계의 사정상 기록물의 직접 수집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예술기록은 대체로 민간에서 생산된 기록물이어서 수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록물을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그 속에서 선별과 평가의 과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자료원이 직접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수집하는 기록물은 예술사적 가치를 엄선하여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당분간은 현재의 것보다는 과거의 기록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

- 필요가 있음. 또한 그 결과물들은 향후 예술자료원이 보유한 대표적인 기록물로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공연 영상 제작 사업>이나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으로 그 규모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기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적극 필요함
- 예술자료원의 근무 인력도 단순한 행정 지원에서 벗어나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사서 및 전산 전문 직원뿐만 아니라 장르별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도 함께 배치될 필요가 있음.

## 제2절 예술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기록물 수집 체계 확립

- 예술 기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개발과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 예술기록 생태계의 조성은 예술기록관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양적으로 확대시키는 데에서 출발해서, 그 활동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적인 지원 과정을 필요로 함
  -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등과 같은 지방문화재단이나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문예회관 등이나 또 다른 관심 있는 주체 (예컨대, 한국춤문화자료원의 '김천흥컬렉션', '정영두 <프로메테우스> 안무기록', '국수호춤자료아카이빙' 사업과 같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예술기록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이 예술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예술자료원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고, 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이전에도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어서 일회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중단된 사례들이 매우 많음. 이 사업은 그러한 결과를 지양하고 기금이 투입된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술자료원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을 활용해서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아카이브,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할 수도 있으며
- 예술지원사업을 예술기록관리의 확산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협력 채널 구축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공적인 활용(목록과 디지털 기록물의 공개)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다른 정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연구 지원 사업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업비에 대한 전액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연구재단의 경우에 연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 관한 토대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기초학문자료센터와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데, 이러한 사업 모델을 예술자료원에서도 그대로 채택 수 있음.
  - 예술기록 수집과 예술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관련 수혜 기관을 중심으로 예술기록관리협의회(가칭)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기구에서 예술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 등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예술기록 수집 제도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예술기록 수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활동, 특히 공적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으로, 이전까지의 기록 수집이 아날로그 기록물을 대상으로 사람이 수집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과는 달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련된 메타데이터와 함께 기록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이며, 제출자의 입장에서는 정산 보고를 위해서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을 전산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다만 기록물의 전산 제출이 의무화되고, 수집된 기록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록물 활용과 관련된 법적인 동의의 절차 등이 자료 제출 과정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의무 제출해야 하는 기록의 양적인 범위가 다소 확장될 수 있을 것임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과 연계하여 예술가들이 지원시스템에 제출한 결과물이 곧바로 예술기록과 자료 수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 기록물의 수집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물 의무 제출 내역의 명세화
    - 기록물 제출 명세는 지원 금액과 지원사업의 유형, 장르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

## 제2절 예술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기록물 수집 체계 확립

- 전액 지원 사업 (예컨대 201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이나 지원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소액 지원이나 부분 지원 가운데 1억원 미만을 상이하게 취급)
  - 매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공고 게재 시에 사업 내역별 의무 제출 자료를 명세화하여 지원사업 신청 공고와 함께 게시

[표 4-1]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예시

장르	사업명	의무 제출 자료
문학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상자사진(JPG)
	우수문예지발간지원	표지사진(JPG)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	행사자료집, 팸플릿(PDF) 포스터, 행사기록사진이미지(JPG)
	문학창작공간지원	공간홍보브로슈어(PDF)
시각예술	시각예술비평, 연구활성화사업지원	행사기록사진, 관련 포스터(JPG), 팸플릿(PDF)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행사기록사진, 관련 포스터(JPG) 자료집, 팸플릿(PDF)
	공연예술행사지원	공간기록스냅사진, 관련 작품이미지(JPG), 공간홍보 브로슈어(PDF)
공연예술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사업지원	행사기록사진, 관련 포스터(JPG), 팸플릿(PDF)
	공연예술창작 및 발표공간지원	공간기록스냅사진(JPG), 공간홍보브로슈어(PDF)
	공연예술창작산실지원	대본, 연출노트, 팸플릿(PDF), 공연실황영상(MP4), 공연(연습)사진, 포스터(JPG)
	창작뮤지컬육성지원	
다원/ 융복합	다원예술창작지원	관련 행사기록사진, 작품이미지, 포스터(JPG), 관련 팸플릿, 대본/악보(PDF)
	융복합예술창작지원	
국제교류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행사사진(JPG)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수혜자사진(JPG)
	ARKO-PAMS 협력사업지원	수혜자사진(JPG)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관련 기록사진 및 관련 이미지(JPG), 관련 작품기록(PDF)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기획형)	수혜자사진, 현지체류사진(JPG), 관련 작품기록(PDF)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수혜자사진, 현지체류사진(JPG), 관련 작품기록(PDF)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 사업부터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문화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지원 사업 등과의 협의를 거쳐 기록물 의무 제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향후 국고 및 공공 지원을 받는 예술 활동에 대한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하는 훈령 등의 제정 검토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입력된 예술가들의 활동 내역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의 FRBR의 제2개체(개인, 단체)에 해당하는 정보들로 향후 전거데이터베이스 및 온톨로지, Linked Open Data 등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계 활용에 대해서도 예술가들의 동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의 구조적 연동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제3절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운영 활성화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과 예술자료원 소장자료 시스템의 통합
  - 앞으로 예술자료원의 이용자 정보서비스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 문헌정보실의 폐쇄와 같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축소하는 대신에 온라인 서비스의 기능과 내용을 대폭 보강해서 이용자의 실제적인 만족의 정도를 높여 예술자료원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
  - 현재 예술자료원 정보서비스의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술자료원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들이 통합적으로 검색되지 않고 모두 개별적으로 검색이 되면서, 그 안에 포함된 기록과 데이터도 모두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보서비스의 실제적인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파편화된 기록 정보서비스를 일원화된 체계로 통합할 필요가 매우 절실함
  - 현재 DA-Art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디지털기록물에 관한 메타데이터와 예술자료원 소장자료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기록물은 완전히 별개의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어서, 디지털아카이브에는 예술자료원 소장자료관리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양의 자료만이 입력되어 있을 뿐이고, 예술자료원 소장자료 관리시스템에는 해당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콘텐츠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동일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작품이나 공연 정보, 작가 및 단체 정보에 대해서도 데이터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보검색의 품질을 저하 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예술자료원의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메타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서 검색과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기회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편리해질 필요가 있음
-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의 확대와 가치 평가를 통한 선별적 접근
  - 예술자료원은 2011년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예술기록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주요공연장

- 관련 자료 73,348면, 무대미술 관련 자료 498면, 창작음악 악보 1,087면, 음원 371건을 디지털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이후 예술자료원의 디지털화 사업은 예술기관이나 단체가 보유한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 추진 방식만으로는 예술사적인 가치나 사료적인, 증거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발굴하여 디지털화하고 서비스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또한 기록물을 제공하는 단체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기록물의 종류와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물을 활용해서 공연이 기획되고, 제작된 맥락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단순히 파편화된 하나의 기록, 아이템의 수집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이러한 사업 이외에 예술자료원 소장 기록 가운데 그 가치가 높은 것들을 골라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작업에서 진일보해서 기록물이 가지는 예술사적 가치 맥락을 재구성하는 차원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디지털화 작업을 대상 기록물의 매체별 특성에 따라 무작위로 진행하지 말고 해당 기록물이 가진 예술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기획 컬렉션 형식으로 디지털화 작업 진행
  - 예컨대 ‘한국 연극과 사실주의’라는 기획 제목을 구성해서 예술자료원이 확보하고 있는 사실주의와 관련된 연극 작품들의 사진, 포스터, 팸플릿, 공연 동영상
- 소장 기록물 가운데 저작권 문제로 온라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기록물의 열화 등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서 디지털화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 예술자료원 본원과 분원에서 방문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토록 하고 향후 예술자료원의 모든 이용자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관내 서비스를 포함)될 수 있도록 기반 환경도 조성

## 제3절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운영 활성화

## □ 예술용어사전의 구축과 서비스

- 예술자료원이 궁극적으로 예술가들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 정보는 예술자료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과정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필요성은 불가분 예술사 연구와 예술자료원의 관련성을 검토하게 함
- 예술자료원은 결국 대한민국의 예술사를 설명하고 만날 수 있는 기구로서 그 고유한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예술사 관련 기구로서의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함
- 이미 기록이 소실되어서 사실정보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예술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함께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예컨대 차범석의 <산불> 초연에 관한 기록을 지금에 와서 확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록물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작품이 가지는 예술사적인 의의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사실 정보의 구축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임
- 예술기록에서의 맥락이란 결국 이러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예술사적인 맥락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기록물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예술작품과 예술가들의 사전으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검색도구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 작품이나 인물과 관련해서 확보하고 있지 못한 기록을 드러내는 효과를 창출해서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해당 기록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수도 있으리라 기대함
- 해방 이후 예술가, 예술단체, 예술작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예술용어 등으로 확대시키고, 아울러 용어사전을 시소러스 또는 링크드 데이터, 온톨로지 등으로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lt;문예연감&gt;과 연계한 사실 정보 수집에 대한 검토 필요

- 예술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문예연감>은 한 해 동안의 예술 활동이 이루어진 전반적인 내역을 기록하고, 통계화하는 작업으로, 기초 데이터의 수집을 예술자료원의 기록물 수집과 연계하면 시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예술위원회 관련 사업부서로부터 예술자료원으로서의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예연감>과 관련된 데이터는 기록의 확보에 앞서서 관련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벌어진 예술 활동의 총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현황 속에 기록물도 함께 수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문예연감> 발간은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벌어진 모든 장르의 예술 활동을 총 집대성하는 방대한 작업으로 해당 업무의 이관 시에는 관련 예산과 인력도 함께 이관되어야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제4절 기억저장소에서 창조지원센터로

- 예술자료원의 아카이브로서의 성패는 그 수집된 기록물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항이겠지만, 이는 장기간의 성과에 해당될 것이고, 단기간의 성과는 기록물의 활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현재까지 수집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결과물,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자료, <문예연감>,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등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예술창작 오픈 리소스 बैं크(이야기, 디자인, 이미지, 음원 등)'을 구축하여 예술가의 창작을 직접 지원함
- 예술자료원의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예술창작을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로 정립되어야 함.
  - 단순한 기록의 보관을 지양하고, 기록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예술 창작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예술자료원의 사업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소장된 기록을 통해서 감춰진 예술사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조사와 연구 작업을 지속해야 함
  - 예를 들어, 20세기 한국예술사에 대한 모든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을 시간, 장소, 분야로 나누어 Index & Mapping하는 작업
- 단순한 기록 보관과 기억 저장을 넘어서 새로운 예술을 창작하고 이끌어가는 창작지원센터로서의 역할로 변신해야함.
  - 차세대 예술인들의 성향은 유목민적 이동성과 유연성이 특징이며, 이들의 창작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저예산으로 협업하는 방식임. 따라서 예술자료원은 다음과 같은 장소로 기능할 것을 기대함
    - 예술에 변화를 가져올 인재들이 찾는 장소: 창작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미디어 교육, 프로젝트 기반의 창작인을 위한 협력공간 제공

- 특화된 데이터와 기술을 제공하는 장소: 새로운 예술 양식을 예감할 수 있는 곳, 창조적 아이디어를 찾는 곳, 저렴한 비용으로 첨단미디어 장비(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및 시설을 대여하는 곳
-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JOB 센터 및 협업 정보센터로 역할

## 제5장

# 닫는 말

- 예술자료는 예술 활동의 궁극적인 결과물인 예술 작품 뿐 만 아니라 예술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감상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예술기록의 수집과 관리는 예술 작품의 탄생과정과 그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고유한 맥락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로, 점차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예술자료원은 1979년 설립 이래로 지속적으로 예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관련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지만, 사회적인 요구의 변화와 함께 도서관에서 아카이브로 그 운영의 정체성이 변모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와 사업의 영역도 달라지게 됨.
- 예술기록과 자료의 수집과 관리의 국가적인 체계 확립이라는 정책적인 목표하에 국립예술자료원이 출범하였으나, 법적인·제도적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출범하면서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재통합되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흡수·합병이 예술기록과 자료의 수집과 관리의 국가적인 체계 확립이라는 거시적인 목표의 축소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술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 수립을 위한 모색을 또 다른 준비기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의 수행을 위해서 국가적인 예술기록관리 전문기구로서의 예술자료원의 위상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그렇지만 예술자료원의 소규모의 인력과 빈약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예술자료원이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예술기록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 확산을 위해서 앞으로 예술자료원은 전국에 예술

기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서 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예술기록관리를 자생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들을 만들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지금껏 수행해 오던 독립적인 예술자료 수집과 관리기구로서의 역할 가운데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보다 그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제도와 연계한 기록물 수집 프로젝트의 개발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연계한 기록물의 자동 수집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 사업에서 지방문화재단의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 지원으로도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 예술자료원 소장자료 관리시스템과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의 통합적인 관리와 검색, 소장자료 디지털화의 확대와 엄격한 가치 평가에 따른 선별적인 접근을 제안하였음. 또한 기록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술사적 가치를 확보한 예술작품과 인물에 대한 사실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용어사전 구축 등을 제안함.
- 예술자료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재합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이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을 자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단의 시점이 너무 빨라서 아쉬운 측면이 존재함. 국립예술자료원의 발족은 예술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라는 대의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보다도 강력한 것

이었음. 국립예술자료원은 영세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으로 넘치는 조직이었지만, 앞으로 예술자료원에서 이러한 자긍심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남겨진 과제임. 예술자료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재합병이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함.

- 무엇보다도 예술자료원은 전진적이고 발전적이며 새로운 역할의 모색으로 다가올 미래의 예술을 위한 촉매센터로 변신을 꾀해야 함. 이를 위해 예술자료원의 기능과 장소성에 대한 재점검과 특이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자원의 수집, 리서치, 창작의 전과정이 연계되어 창조를 지원하는 센터로 위상을 정립할 것을 제안함.

예술아카이브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



1. 이범환(2009),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 서수옥(2006), 『우리나라 미술관 자료실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3. 백재은(2005), 『우리나라 아카이브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4. 이두진(2013), 『Web 2.0 기반의 예술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 -국립예술자료원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5. 태양식(2009),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영상 아카이브 관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6. 정은진(2007),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공프로그램의 역할과 운영방안』,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7. 김봉은(2012), 『서울대학교 기록관의 역사기록물 관리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8. 성기숙(2004), 『한국 춤문화유산과 공연예술자료관의 미래상』, 무용예술학연구, Vol.14 No.-, pp.119~142
9. 김연주(2009),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전시 비교와 개선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2호
10. 국립예술자료원(2012), 연차보고서 2011.
11. 국립예술자료원(2013), 연차보고서 2012.
12. 국립예술자료원(2014), 연차보고서 2013.
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예술기록관리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연구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15. Arko Archives Artist Portfolios 2014
16. Arko Archives Media List
17. Jerome Robbins Archive of the Recorded Moving Image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3

18. Bruce W. Dearstyne(1997), Archival Reference and Outreach : Toward a New Paradigm, The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al and Manuscripts, The HaworthLand.
19. Joan Rabbins(1984), Archival Exhibits : Considerations and Caveats, A Modern archives Reader,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예술아카이브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

